

교회 목록

신령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관 총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진다
마태복음 4:17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7 총회교회

THE WEEKLY CHONGHYUN

발행인:김성관 편집인:노광현 편집:양재용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라”(행 6:3)



장로·안수집사 파택 결정 및 권사 파택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 다음 주일(25일), 4부 예배 후

초대교회가 보혈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행 2:1~4)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행 6:3~7)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은총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에는 화려한 경력과 경험을 자랑하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필요치 않습니다. (딤후 2:20)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는 질그릇이 필요할 뿐입니다. (딤후 2:21)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참 믿음을 고백하는 죄인들이 필요합니다. (마 9:37, 38)

다음 주일(25일), 4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질그릇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결정됩니다. 바로 그 결정의 중심에는 주님과 그리스도의 교회(행 34:26)를 열망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공동의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들을 선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롬 15:16) 무엇보다도 <주간총회>에 공고된 장로 후보 13명과 안수집사 후보 36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주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십시오. (골 1:23)

*장로 및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은 본지 6,7면을 참조하십시오.

이웃 사랑 실천! 장애우 이해를 위한 강연회

강연회 : 3월 28일(수)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충현복지재단 세미나 : 3월 29일(목) 오후 2:00-6:00, 제2교육관 4층

십자가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충현복지재단은 개관 12주년을 맞아 강연회와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강사인 루안 퍼셀 박사(Dr. Luann Purcell)는 미국 C.A.S.E.(Council Administrators of Special Education) 상임이사로서, 장애아 교육 전문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강연회와 세미나는 단순히 복지관계 종사자들 외에도 장애우를 둔 부모나 충현의 성도들에게도 정신지체 장애아에 대한 이해와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는 장애우에 대한 막대한 동정심만 있을 뿐 실제로 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중언부언(마 6:7) 때가 많습니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강연회와 세미나를 통하여 장애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셨으면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및 관심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엡 5:2)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들으라! (금요안양집회)

구별된 삶

신자들이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딤후 3:1~5)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삶을 통하여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사 13:5)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사사기는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며 마침내 이방인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사 21:25) 이스라엘은 고통이 심하여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다. (사 10:10,16)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들은 이전과 똑같은 타락된 삶을 시작한다. (갈 6:7) 많은 사사들 중에서 삼손만 특이하게 항상 홀로 싸웠다. 다른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 세우 주신 자들이다. 그러나 삼손은 그 택함받은 방법이 달랐다. (사 13:5) 나실인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서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삼손은 그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였지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삼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블레셋 사람들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정복하지 않고 융화정복을 가지고 정복하였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부유하게 되었지만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찾을 수가 없었다.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다. 사회, 문화 속으로 흡수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세상에서부터 구별된다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세상의 방법, 조직, 세상에 속한 어떠한 것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요일 2:15~17) 참으로 세상과 그 속의 나라를 원하는 것들은 모두가 지나가 버릴 것이나 오직 하나님에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이다. (벧전 1:23~25)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약 4:4) 미국에 아미쉬(Amish)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다. 이들은 메노나이트(Mennonites, 16세기 종교개혁의 급진적 개혁신앙인 제네바에서 발생한 프로테스탄트)로 교단에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신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요 17:14) 우리를 향하여도 같은 말씀으로 요구하신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미쉬인들을 예로 들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주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화적으로 구별되어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이들의 삶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의 삶을 대표해 하고 있다. 이러한 삶은 가슴으로부터 넘쳐 나오는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영적인 자, 즉 죄에서 떠나 구원됨이 좋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다. 죄에서 떠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하나 이러한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의 법을 만들게 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큰 항목 중의 하나가 되어버린다.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어 종교적으로 금기시 할 때에는 그 의미가 상실하게 되고 만다. 우리들이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된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된 사람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는다. (마 28:19,20)

많은 신자들이 그저 세상과 같이 될 정도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세상사람들과 너무 같아서 그리스도인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이다. 믿지 않는 자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지만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오! 난 그 친구가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몰라!”라고 평가절하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소금이나 빛은 사용되기 전에는 좋은 것을 모른다. (마 5:13-1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대로 영향을 미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 우리는 종종 죄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신자들의 모임을 본다. 이렇게 죄인들과 구별되어서 저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단 말인가? 사도 바울 역시 우리들이 음행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살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분명하게 권면하는 말씀은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한다. (고전 5:9,10)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구별하는가?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은 항상 성경이 밝혀주고 있다.

VICTORY OF THE CROSS

(8)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o whom the stroke was due? ... (12) Therefore, I will allot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booty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mself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Himself bore the sin of many, And interceded for the transgressors. (Isaiah 53:8~12)

Isaiah prophesizes the great cross of Jesus Christ throughout chapter 53. He talks about the rejection of our Redeemer, the suffering of our Shepherd, the wounds of our Savior, the Man of sorrows, the silence of the Lamb, His slaughter for sinners, and the sinfulness of all humanity. Everything he foretold exactly happened 700 years later. When we look at Calvary, we see Isaiah's prophecy. He emphasizes the key characters of the crucifixion, "By oppression and judgment He was taken away; And as for His generation, who considered That He was cut off out of the land of the living For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to whom the stroke was due? His grave was assigned with wicked men, Yet He was with a rich man in His death, Because He had done no violence, Nor was there any deceit in His mouth." (vv. 8&9) Jesus Christ's oppressors, the soldiers and the multitude of wicked people who spit, poked, beat, and hurled abuse at Him, killed Him even though He died for them. They intended to bury Him with the wicked since they considered Him a criminal, but instead He was given an honorable burial in the rich man, Joseph of Arimathea's tomb. Indeed, Isaiah gives us the suffering Christ, but he also provides the victory of the cross.

At the cross there is resurrection. When you read Isaiah 53 in its entirety, everything comes across as very sad and depressing, except verse 10. If you read it closely you can see the wonder, "But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putting Him to grief; If He would render Himself as a guilt offering, He will see His offspring, He will prolong His days, and the good pleasure of the Lord will prosper in His hand." To prolong His days after being made an offering would necessitate bodily resurrection. This is the good news, the victory of the cross. Christ would live to see His offspring, which are those who would believe on Him, like you and I. The Lord God's pleasure was not an afterthought; it was His plan from long ago. It is the plan available now, but not forever. Paul discovered the secret, "For I delivered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what I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1 Cor. 15:3&4) He knew the Scriptures of Isaiah 53. He found that the cross and resurrection are God's good news because of His victory over death.

At the cross there is justification, "As a resul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will see it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will justify the many, As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v. 11) The result of Jesus Christ's anguish was the forgiveness of sin, which is justification or God's divine satisfaction. Christ's suffering and death is more than sufficient. The debt of sin was paid at the cross. Romans 3:23&24 say,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being justified as a gift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which is in Christ Jesus." On the cross, Christ cried out, "It is finished!" (Jn. 19:30) Redemption was completed. All who believe are justified by faith and have peace with God,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Rom. 5:1) Amen.

At the cross there is intercession, "Therefore, I will allot Him a portion with the great, And He will divide the booty with the strong; Because He poured out Himself to death, And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Yet He Himself bore the sin of many, And interceded for the transgressors." (v. 12) He died on the cross, but resurrected and ascended into heaven. He cleared the way for us, and His desire is to have us follow Him to God's kingdom. Right now, Jesus Christ is praying for you and me from heaven. Romans 8:34 says, "Christ Jesus is He who died, yes, rather who was raised, who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ho also intercedes for us." Hebrews 7:25 also says, "Therefore He is able also to save forever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Jesus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the point of death, and God highly exalted Him, and bestowed o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so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will bow, of those who are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Phil. 2:10) Only Jesus Christ can intercede for sinners and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God.

My dear friends, Jesus Christ died for sinners. The debt is paid. Not only that, but Christ is risen. He is able to save you and me from eternal death. Right now, He intercedes and represents us before the throne of God. He prays for us. His cross paid the debt of sin and makes it possible for us to become new creatures. His cross intercedes for everyone who believes, so that we can go to the Kingdom of God. This is the 5th Sunday of Lent, please come back to Jesus Christ and believe in Him with all your heart, so that your soul can have eternal life. 

십자가의 승리

⁽⁸⁾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
⁽¹²⁾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3:8~12)



김성파 목사

십자가의 승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에 대해 예언합니다. 배척당하시는 우리의 구속자,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목자, 상함을 받는 우리의 구세주, 슬픔의 사람, 침묵하시는 어린 양, 죄인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가 예언했던 모든 것은 7백 년 뒤에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갈보리를 보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는 십자가가 지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역설합니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8,9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들, 군병들과 수많은 악한 무리들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들을 위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짐을 뺐었고, 찢고 때렸으며,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겨 악한 자들과 함께 묻으려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고귀하게 묻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십자가의 승리에 대해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를 읽어보면 10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을 더 깊이 묵상해보면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계 물로 드리기에도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제물로 드려진 후에 그의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곧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서 자신의 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 전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던 부분이었습니니다. 지금도 그 계획은 실행 중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전 15:3,4) 바울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니다. 그는 십자가와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복음임을 발견했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의롭다하심

십자가가 있는 곳에 의롭다하심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극한 고난이 죄 사함,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

켰고 그로 인해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도 남습니다. 죄 값은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로마서 3:23,24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요 19:30) 구속 사역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 5:1) 아멘.

십자가의 승리, 중보기도

십자가가 있는 곳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12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34은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25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 세우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빌 2:10)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실 수 있으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빛은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지불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수요일 예배 메시지
(2007. 3. 14.)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53:5)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들끼리 나누는 사랑은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을 우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불가능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슬픔의 사람(사 53:3)으로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 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찔리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받도록 하셨다. 찔림을 받으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예언하였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도다”(산 12:10)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로 찔림을 받으셨다.(막 15:17)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으며 열구리로 들어간 창은 상함을 찔렀다.(요 19:34) 사실, 예수님은 무죄하셨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눅 23:41)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찔림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직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되시기 위해서였다.(히 5:9) 이를 위해서 33년간의 예수님의 삶은 눈물로 가득한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찔림을 받으셨던 것이다.(히 5:7,8)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셨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라’(히 10:10) 그리스도의 찔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상하셨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도록 하셨다. 모진 고문과 조롱으로 예수님의 몸과 영혼은 크게 상함을 받으셨다.(마 27:29; 눅 23:33,34) 이러한 일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었다.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라 하니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 3:15)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신 예수님의 상하는 매우 깊었음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눅 4:18) 그리스도의 상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루신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화목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롬 5:10) 이것은 순전히 십자가를 통한 은총의 역사이다.(엡 2:14~17)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하나가 되었다. “그의 신자들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골 1:20)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화목다함임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롬 5:1, 찬 469장)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진 고문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다.(벧전 2:24)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평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자. 우리의 계산법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징계와 채찍으로 주시는 참 평화가 있다. 그런데 정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갈보리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세상의 계산법을 내세우며 십자

가를 무시하고 결말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찬 135장) 십자가를 무시했던 자신의 악한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자.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마 11:25)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 찔림, 상함, 징계 그리고 채찍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마 16:18) 매순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삼”(찬 208장)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대답이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곧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도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찬 138장) 아멘.

선교소문

우리는 실패했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공안을 따돌리기 위해 몇 번이나 짐을 썼다 풀었다 반복했던 우리 팀의 선교사역을 통해 주님께서는 선교가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온 몸으로 체험해 해 주셨다. 선교를 다녀와서는 웃기는 가운데 전도를 많이 하지 못했다는 좌절감과 더불어 ‘눈치 보며 어렵게 휴가를 내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선교를 하려면 다음에는 선교를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다. ‘함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오!’라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래도 나는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용서하오 주께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내가 내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고민하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고백만 올려드렸다.

공안을 피해 다니는 중에도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밭이다.”라며 조심스레 다가가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거절하는 아픔을 더 많이 겪었다. 철저한 자기부인과 순종이 안 된 나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방해물 받지 않았을까? 나는 얼마나 자책 없는 원인이 되어 선교에 임했던가! 자기부인과 순종을 습관적으로 적당히 하지 않았던가! 자기부인이 안 되니까 중용의 자세로 조심스레 겸손한 척, 복음에 매인 척하며 모든 것을 내가 해 보려고 하지 않았던가!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한 나를 믿고 기도하며 파송한 교회에 나는 빛진 자였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 날 이될 때마다 길 길을 몰라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냐?”라고 외리며 막연히 출발하는 우리 팀에게 예수님께서 한 하루하루의 사역을 인도하셨다. 선교를 다녀온 후 본당에서 금요찬양집회를 드렸던 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에 주님이 계셨음을 손으로 만지듯 또렷이 확인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형상이 내 눈에 환히 보였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노라, 그곳에 내가 있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

충현의 단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그곳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곳을 적셨다’라는 복음을 내게 주셨다. 이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다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은 “충현의 선교사들이 누비고 다닌 것이 아니고, 어떤 날 예수님께서 친히 다니신 것이다! 알고 있나?”라는 복음 전파의 비밀을 들려 주셨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절대적인 항복과 순종만이 복음에 대하여 아름답게 포장한 제 모습을 깨뜨립시다. 내 안에 자랄까 것이 있다면 죄로 점철된 인생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나, 베다니의 문둥병자 같은 나, 사바디야 어린 같은 나, 성령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연약하고 실패한 모습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께 아무 것도 드릴 것 없이 추하고 험하고 허물 많은 속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내시는 곳을 향해 십자가의 복을 들고 나가됩니다. 이제 선교는 또 다시 시작입니다.” 아멘.

정진선(집사, 오산부2팀)

2007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의 교회 (에스겔 34:26)

✧ 소심한 저에게도 힘을!

저는 충현교회에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아직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한 새가족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고 "기도문"이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져 하루 빨리 충현교회에 적응하게 도와주심을 간구하는 것이 저의 기도제목입니다. 그런 제가 이번 청지기훈련 집회에 참여하고 보니 은혜와 복음에 대해서 더욱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을 도와주신다는 말씀은 소심한 저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도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예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표기성(성도, 새가족양육부)

✧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셨다

예배가 시작되자 목사님은 힘찬 말씀으로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셨다. 특히 썩고 부패한 목자에 관한 비유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선포한 예수님 선지자의 말씀은 자기부인이 안 된 나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을까?"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누가 큰 말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다. 한번도 그러한 부분을 마음 깊이 생각해본지 못하였고 그냥 주어진 삶이니 "열심히 살자"라는 심정으로 생활했던 나에게 그 말씀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러다 보니 나는 매일 세상적인 일로 바쁘게만 생활했고 평일에는 일을 핑계로 교회를 한번도 찾지 않았다. 복음에 충실한 믿음을 생활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주신 목사님의 말씀, 아니 주님의 음성은 나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였다.

박병욱(집사, 청년2부)

✧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심에...

작년 일년 동안 교회와 말씀을 통해 회개를 시키시더니, 회개한 자를 향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침묵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가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고 고백 드렸더니 당신께서는 친히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처럼 주님이 호소하며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놓길 원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저를 만들어 가고 계심에 오늘도 저는 마음을 다해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강은미(집사, 5교구)

✧ 나를 향한 주님의 외침

목자들의 썩은 모습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가 외치고 있다. 아니 나를 향해 주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나는 참 목자인가? 처음 시작하는 말씀부터 나를 강하게 혼디신다.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신다. 이런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고 복 주시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신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성에 곁에 서더니" 눈을 감고 찬양을 하며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다. 마음이 기쁨으로 박차오른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리스도의 축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 복의 근원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최병민(교사, 중등2부)

✧ 아멘! 아멘!

저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예수 믿는 머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되는 일이 없다고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남편도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저의 가족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께서 저의 믿음을 이해하시고 많이 부드러운지셨고, 남편도 변해갑니다. 사업이 안 되어 실의에 빠진 남편에게 "여보! 주님을 만나 봐.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어. 당신도 주님의 자녀야!"라고 말했더니 "그럼, 주님께 기도해 봐요!"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완전히 캄캄했는데 이제는 빛이 보입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청지기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저의 믿음이 회복되고 거듭난 자로서 교회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있는 자로서 제가 가는 곳마다 복된 자리가 되어 그곳에 은혜의 장막비가 내리리라 믿습니다. 이 연약한 죄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임반민(집사, 7교구)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28	강영자	16	청년3부	함영연(18)	449	오춘이	16	에바다부	변창대(8)
429	황기천	18	청년2부	신희홍(18)	450	장영희	19	에바다부	윤명필(16)
430	김의종	7	청년3부	남용철(7)	451	이호찬	19	청년1부	정승연(18)
431	오현숙	19	청년1부	김은실(7)	452	권경민	19	청년1부	최자용(8)
432	안경희	19	청년1부	이광우(3)	453	함규만	4	청년3부	인모순(4)
433	송희춘	14	청년1부	장미지(14)	454	이신숙	1	청년2부	문석곤(4)
434	이동혁	19	중등3부	정소연(15)	455	임승선	9	청년2부	이호일(17)
435	이미애	19	청년1부	이희석(1)	456	신춘호	19	청년1부	김연수(17)
436	차양해	10	청년2부	차영신(2)	457	임해성	17	청년1부	김영조(17)
437	장영혜	9	청년2부	최명희(2)	458	김진경	19	고등부	남지혜(7)
438	이혜경	12	청년2부	이선홍(12)	459	원 천	8	청년2부	
439	김영희	8	청년2부	이인숙(8)	460	황건도	19	외선부	김신국(1)
440	야사	19	외선부	이순영(10)	461	안드레이	19	외선부	우미드(19)
441	조카	19	외선부	최규태(1)	462	하재선	16	청년1부	오순도(4)
442	아루나	19	외선부	홍순길(1)	463	정호영	19	청년1부	김순이(17)
443	김성룡	19	청년1부	김성희(18)	464	염연옥	18	청년2부	김병희(14)
444	생글	19	외선부		465	권윤숙	1	청년2부	
445	바일	19	외선부		466	박중후	12	청년2부	배에스터(12)
446	이세진	19	대학부	손기영(8)	467	정영숙	19	청년1부	이숙희(14)
447	김종문	19	청년1부	이영숙(4)	468	서대원	4	청년3부	임태주(1)
448	서혜영	19	고등부	최옥숙(14)					

*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제40대 장로 후보자 명단



김철환
나이 60
교구 11
봉사 부서 지역장
이벤트담당대
번호: 1



이인광
나이 59
교구 7
봉사 부서 지역장
차량안내부
번호: 2



김연태
나이 59
교구 9
봉사 부서 안수집사회장
장년3부부장
번호: 3



김종홍
나이 58
교구 8
봉사 부서 지역장
차량안내부
번호: 4



장철환
나이 56
교구 4
봉사 부서 지역장
예배안내부
번호: 5



정태동
나이 55
교구 5
봉사 부서 지역장
장년1부교사
번호: 6



이세영
나이 55
교구 6
봉사 부서 지역장
할렐루야원양대
번호: 7



이성섭
나이 54
교구 12
봉사 부서 지역장
새가족부교사
번호: 8



장철규
나이 53
교구 13
봉사 부서 지역장
건축회원
번호: 9



이보신
나이 53
교구 1
봉사 부서 지역장
중등1부부장
번호: 10



이상해
나이 53
교구 2
봉사 부서 지역장
유치부부장
번호: 11



조증민
나이 52
교구 7
봉사 부서 지역장
예배위원
번호: 12



김성호
나이 52
교구 3
봉사 부서 지역장
영아부부장
번호: 13

(나이순)

제20대 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김 광
나이 63
교구 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바울전도회장
번호: 1



안병택
나이 63
교구 11
봉사 부서 바울전도회장
예무상명원양대
번호: 2



정달영
나이 61
교구 16
봉사 부서 중등2부교사
번호: 3



성태열
나이 59
교구 1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장년1부교사
번호: 4



김연춘
나이 58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등1부교사
번호: 5



김영연
나이 58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차량안내부
번호: 6



배판웅
나이 58
교구 1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선교위원회
번호: 7



김현근
나이 57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예배위원
번호: 8

장로·안수집사 후보자 명단

**김재운**

나이 57
교구 1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9

**곽상조**

나이 57
교구 7
봉사 부서 교회직원

번호: 10

**조성수**

나이 53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11

**오동혁**

나이 53
교구 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에바다부교사

번호: 12

**승문식**

나이 53
교구 8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13

**이영식**

나이 52
교구 13
봉사 부서 회계부

번호: 14

**김동휘**

나이 51
교구 9
봉사 부서 회계부

번호: 15

**함경무**

나이 51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새가족부교사

번호: 16

**변인식**

나이 51
교구 6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17

**안연식**

나이 50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임마누엘찬양대

번호: 18

**노수식**

나이 48
교구 3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외선부팀장

번호: 19

**김일생**

나이 47
교구 14
봉사 부서 중동1부교사
남성구역장

번호: 20

**정중현**

나이 47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21

**김진석**

나이 47
교구 1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사랑부교사

번호: 22

**최동삼**

나이 46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초동부교사

번호: 23

**김근**

나이 46
교구 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번호: 24

**승영상**

나이 46
교구 6
봉사 부서 예배위원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25

**이상배**

나이 46
교구 2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26

**여영호**

나이 45
교구 18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27

**선명환**

나이 45
교구 4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28

**유승렬**

나이 44
교구 1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현금위원

번호: 29

**정인욱**

나이 43
교구 1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30

**남중호**

나이 42
교구 12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새가족부교사

번호: 31

**김영모**

나이 42
교구 5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중동3부교사

번호: 32

**박성곤**

나이 42
교구 10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할렐루야찬양대

번호: 33

**박노익**

나이 41
교구 17
봉사 부서 남성구역장
창년2부교사

번호: 34

**김봉화**

나이 40
교구 11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35

**류태준**

나이 37
교구 12
봉사 부서 요한전도회장
새가족부교사

번호: 36

(나이순)

*다음 주일(25일), 4부 예배 후(오후 2시) 공동의회 시 장로·안수집사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합니다.

세례교인 이상인 분은 모두 참석하여 주십시오.

모임

1. 권사회 3,4지회 월례회
일 시: 21일(수) 1부예배 후
장 소: 광림리홀
2. 남해전도부 전도회장 지구별 월례회
일 시: 25일(다음 주일) 15:10
장 소: 1지구: 제1교육관 407호(1,2,3,4교구)
2지구: 제1교육관 408호(5,6,7,8,9교구)
3지구: 제1교육관 404호(10,11,12,13,14교구)
4지구: 제1교육관 405호(15,16,17,18교구)

별 세

1. 호지키 성도(강제계 집사의 모신, 윤일승 집사의 시모, 2교구 개조7구/8월) 8월 밤제, 10월 장미경의 시모, 8월 밤제, 10월 장미경
2. 박복순 성도(선교사 성도의 모신, 17교구 장미경의 시모, 8월 밤제, 10월 장미경)
3. 지도성도(선교사 성도의 부친, 신혜영 집사의 시부, 2교구 한양장구/8월 밤제, 11월 장미경)
4. 이종태 집사(권사이신 성도의 모신, 다양한 집사의 시모, 2교구 장미경구/9월 밤제, 11월 장미경)
5. 권순모 집사(교회개혁운동의 모신, 권순환 권사의 시모, 1교구 새마을구/9월 밤제, 12월 장미경)
6. 전진하 집사(성도(윤국연 집사의 조카, 조경달 집사의 장모, 7교구 장미경구/12월 밤제, 14월 장미경)
7. 박복순 성도(영양운동 집사의 모신, 김진하 권사이신 시모, 15교구 새마을구/14월 밤제, 15월 장미경)

결론

1. 조민хан 군(송난이 씨의 아들)과 조윤나 양(조현재
성도, 남기숙 집사의 딸, 3교구) / 24일(토) 오후
시 30분 군인공제회(밀레니엄) 3층
(02)2190-2221. 2
2. 정영현 군(경문대 성도, 김재남 집사의 아들, 17교
구)과 정승희 양(정교로 성도, 우희자 권의 딸, 천
호제일감리교회) / 24일(토) 오후 2시 천호제일감
리교회 (02)743-6431. 2

◆ 제1교육위원회 교사 영성훈련

일 시 : 3월 18일(오늘), 오후 12:20~1:45
대 상 : 재교육위원회 소속 교사(영어부~중등3부)

◆ 2007년 전반기 교육운영원 개강
수요 성경공부, 교사 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3월 28일(수)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년부 초청 전도집회 일 시 : 3월 25일(다음 주)
◆ 장년부 초청 전도집회 일 시 : 3월 25일(다음 주)

장 소 : 제1교육관 507호

문 의 : 교육국(제1교육관 2층, 내선 473)

장 소 : 제1교육관 407호

장 소 : 제1교육관 3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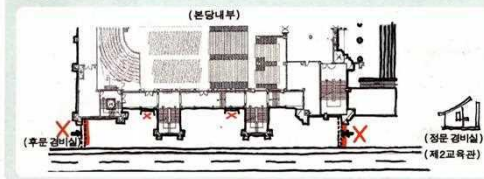
~4시 장소: 갈릴라

교육부령 제407호

본당 외벽 석재 보수공사를 위한 안전 협조

본당 외벽 석재 보수공사 중이오니 출입 시 안전사고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당 서측면(제2교육관) 방향 교회 내부통로의 출입을 금합니다.
2. 본당 서측면 출입문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폐쇄합니다.(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 확인 요망)
3. 통제기간 : 2007. 3. 20~4. 30.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24 (토)	25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산선길	안치원/박광석	안치원/백봉선	안치원/이용수	안치원/강임구	김준희/전영희	여국근/이혜숙

예배담당 안내 (3/21-3/25)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3/21	주요 I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구주 (사 53:7) 김성관 목사	영광	황	성부의 어린 양이 (호산나 찬양대)
3/21	주요 II	그리스도인의 고백 (요 5:22-30) 유현철 목사	아름다운	서경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찬양대)
3/23	공요양회	김성관 목사	임원진		예루살렘 찬양대 / 마이클슨 찬양회 / 소프라노 김희영
3/25	주일 I	십자가의 승리 (사 53:8-12) 김철규 목사	대안신	신진경	[예배 전 찬양] 아버지여 이 려있을 외 / 임아나를 오게스네 참 아버지여 외 / 할렘아는 종중찬양 (가사: 이수환)
3/25	주일 II	십자가의 승리 (사 53:8-12) 김준희 목사	이성진	서영림	
3/25	주일 III	십자가의 승리 (사 53:8-12) 김성관 목사	인도원	안동현	
3/25	주일 IV	십자가의 승리 (사 53:8-12) 김성관 목사	양재용	이실호	
3/25	주일 V	십자가의 승리 (사 53:8-12) 하종철 목사	박규상	김종욱	
3/25	주일양양회	변지 않는 예수님의 겉심 (사 50:4-9) 이준근 목사	류병희	김기홍	주 안에 있노니 네게 외 / 네이 김현숙 - 바움겐 (바움겐 찬양회 찬양소) 가리르네 벵자문장 / 만도니 김현숙 / 할렘아 찬양대

3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사제경(2.21-4.7)를 통하여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② 위임직사제의 사역을 성령에게 통치하심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③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현안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④ 1·1·1 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회 기도회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⑤ 모든 영혼에게 속한 4 부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에베살렘 천국대를 통해서 금요인양식제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 ⑦ 교역에 속한 재단(유지·회관·복지)이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지게 하소서.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력 교구

날 짜	주력 교구
3월 19일(월)	1, 14, 18 교구
3월 20일(화)	4, 10, 13 교구
3월 21일(수)	5, 8, 15 교구
3월 22일(목)	2, 11, 16 교구
3월 23일(금)	9, 12, 17 교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성부의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성부의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주일찬양예배		오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 당
금요일찬양회		저녁 7:00	본 당
세백기 도회		매월 셋째 5:00	본 당

기도원 집회 안내 (☎ 031-765-5472)

집 회	시 간	차 량
회오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철야	자막 10:30	금요일회 후 분당 앞 출발

○월 1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한국어로 하는 오전 10:00 드리는 2부 예배는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부록사				
바다만기 49.0점	류병희 7.2점	여국근 선교문화회	안성덕 11.0점	나광영 97.0점
정진호 18.0점	고광환 16.0점	김익재 3.2점	장 3.2점	임현덕 7.2점
이희식 6.2점	최종철 13.2점	하종철 10.2점	안지연 10.2점	정종삼 16.2점
양재용 관동초	이성진 15.2점	최경자 12.2점	이재영 충흥초	이경춘 91.0점
김준호 8.2점	윤수일 9.2점	황진성 4.2점	유재진 세종중학교	강병구 유안초
전성원 유동초	김철규 7.2점	이용진 외선중학교	양대선 중동1	유성택 신안초
유현철 유동초	탁정현 7.2점	김갑수 4.2점	최성득 4.2점	

■ 여전도사

윤필국 102구	한영준 정준현 62구	김진구 112구	홍순애 122구	이소주 52구
김경남 62구	안태준 162구	김정연 22구	강득일 142구	최문성 72구
전은희 162구	김경자 172구	김경희 152구	이복순A 132구	류진희 대행부
한성일 소행부	임태주 42구	강영미 92구	오미자 82구	이복순B 32구
강호숙 12구	전영희 소행부	이혜숙 청11구		

■ 찬양감독 강임규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초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인희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동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 부	(E)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취년부	(제) 오후 5:20	제2교육관 4층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청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성 망 모	오후 12:15	감 일 리 홈
사 람 부	오후 9:00(11:00)	북지리 지하1층
예배마루	오전 9:00(신앙) 오후 1:00(성경)	제2교육관 1층
타 이 양	(하) 오전 8:30(성) 10 (제) 저녁 6:30(제) 9:00	신교관 1층
세계각양양부	오후 12:15	배 다 니 홈
승려회예배집회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청진성예배교육	주간교육	충현북지리

■ 남자시조로			
이승환 연세대학교	노광헌 경남대학교	이범학 연세대학교	이 훈 연세대학교
김종구 충주대학교	최무길 연세대학교	이창호 연세대학교	차득선 연세대학교
이종석 한양대학교	임무천 16교장	전홍용 연세대학교	전철열 연세대학교
김단용 연세대학교	한승윤 연세대학교	김영수 연세대학교	김환기 연세대학교
이형수 연세대학교	안동현 연세대학교	황만민 연세대학교	김구형 연세대학교
이계인 실용기술대학교	박광양 10교장	이대식 연세대학교	정두태 연세대학교
권명옥 부천대학교	조종환 연세대학교	최진성 연세대학교	김달원 연세대학교
최희룡 서울대학교	노영환 연세대학교	박철구 연세대학교	정경진 연세대학교
조세준 6교장	강철형 연세대학교	김영은 연세대학교	이낙우 연세대학교
김승곤 학원대학교	한철주 12교장	윤석민 연세대학교	정현원 연세대학교
김연근 건국대학교	김국종 연세대학교	김재선 연세대학교	임창익 연세대학교
전진태 10교장	김신국 연세대학교	전제식 연세대학교	장규길 연세대학교
서영식 11교장	구재환 연세대학교	송두수 연세대학교	최사용 연세대학교
유상대 연세대학교	박상대 연세대학교	김규식 연세대학교	신용철 연세대학교
임복식 연세대학교	이상식 연세대학교	오순도 연세대학교	양기수 연세대학교